FOLLOW THE CRACK



SOLO EXHIBITION 2025.05.27.TUE-2025.06.08.SUN





FOLLOW THE CRACK

이영희 개인전

SOLO EXHIBITION 2025.05.27.TUE-2025.06.08.SUN





CONTENTS

목차

프롤로그 Prologue p.8

PROLOGUE

프롤로그

FOLLOW THE CRACK 충별 이미지 Floor Views p.16

1F p.20 2F p.24 3F p.74 4F p.98

텍스트 Texts 박소호의 글 Soho Park, The Crack of Proof

p.137

이선영의 글 Sunyoung Lee, The Secret Door That Opens Wide

p.145

오세섭의 글 Sesup Oh, The Evolution of the crack, into the Younghee Universe

p.159

부록 Appendix

사진 Photo

p.168

영상 Video

p.169

평면/입체작품 Installation

p.169

CV

p.171

FOLLOW THE CRACK

이영희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톰/CRACK>의 주제로 설치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톰/CRACK>은 이러저러한 삶의 톰바구니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여는 일종의 통로로 이해합니다. 그동안의 <톰/CRACK> 작업에서 저는 '여성적 쓰기'의 주체로서 발언하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이는 출판 형식의 책자를 발간(4회)하는 계기도 되었는데 1년 동안 자연의 변화에 맞춰 자발적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과정을 엮은 <톰 Crack : 12> (2012), 국민교육헌장의 393자 대신 떠돌거나 파편화되는 특수문자들로 채워 넣은 논문집 형식의 <393_Ellipsis> (2014), 1년 중 공휴일을 뺀 251일간의 공적 영역에서 비록 자신과의 대회가 말없음표와 더듬거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지라도 낯선 자신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251_ellipsis> (2017)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유기적으로 설치되는 <톰/CRACK> 시리즈는 토기문양, 민속문화와 관련된 농기, 솟대 등의 모티브에 근거하여 바느질, 재봉질 등으로 파편들을 덧대는 방식으로 펼쳐 왔습니다. 특히 <톰/CRACK>으로서의 대지는 분리와 융합을 거듭하는 파편들로 언제 어떻게, 어디에 다다를지 모르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가고 있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2. <FOLLOW THE CRACK> 2025

이번 전시 <FOLLOW THE CRACK>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비롯된 명령어 <Follow the Rabbit>을 전복한 주제입니다. 토끼를 따라가던 그 여정이 <틈/CRACK>을 따라가는 여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틈/CRACK>은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포털이며 단절이 아닌 재구성의 시작점으로 이해합니다. 틈 속으로 들어서며, 자신의 균열과 대면하고, 떠돌던 의미의 조각을 재조합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FOLLOW THE CRACK> 전시구성의 주된 매체는 사진입니다. 그것도 흔들리고 초점이 나간 사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흔들린 사진은 흔히 실패한 사진이라고들 합니다. 그리하여 사진기에는 손떨림방지라는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초점이 나가거나, 먼지묻음 등에 예민하지요.

노년에 접어든 저는 어쩌면 손이 떨리며, 흐릿한 시선에 초점이 나가고, 푸석하고 말라가는 온몸에는 검버섯과 같은 어떤 오점이나 흔적들이 나타나는 일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마치 우주의 납작한 시간과 공간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의 일반적 태도에 빗대어 본다면 노년이야말로 폐기되고 버려질 사진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당당히 맞닥뜨리고 싶었습니다. 핸드핼드로 일부러 흔들어 눈에 뜨이지 않은 곳에 렌즈를 들이댑니다. 그것은 일종의 삶의 크랙(crack)인지도 모릅니다. 배접광목천에 평판 출력된 사진은 그리 쨍하지 않습니다. 천속으로 스미는 색감은 최대한 색의 요소들을 전부 드러내려 애쓰는 여느 전문 인화지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색은 천 깊숙이 서로 스며들어 되레 바랜 느낌을 줍니다. 생 광목천에 점점이 박힌 검은 점들은 어쩌면 오염과 흔적을 강조합니다. 뒷면에 한지를 대어 액자의 배경천으로 쓰여지는 이 쓰임새 또한 제게는 상징적입니다. 이 만만한 재료에 평판인쇄하고, 동양화의 배채기법을 감히 흉내내어봅니다.

옛 사진을 뒤집어보면 누군가의 메모가 있잖아요. 요약된 중요 기록이지요. 저또한 뒷면에 휘갈긴 낙서처럼 저의 이름을 몇 번이고 써보았어요. 날짜도 적어보고요. 어쩌면 이름을 잃을지도,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를 노년의 몸짓이라고나 할까요? 빛을 통과시켜 슬쩍 비추면 그것이 은근히 드러나게. 그리고는 먼지를 털기보다는 최대한 오염(잉크 뿌리기 등)을 입히고 솜을 채워 우글거리는 볼륨을 만들었답니다. 물론 재봉질로 말이지요. 반반하거나 매끌매끌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표면은 어쩌면 오래오래 겨울을 난, 솜이 비져나온 헤진 누빈 옷이나 이불과 같다고나 할까요?

어쩌면 흔들리는 시선 속 노인의 몸짓은, <틈/CRACK>을 통과하며 기억의 층위, 감각의 균열, 존재의 변형을 경험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또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었답니다.

FOLLOW THE CRACK

Lee Younghee

1. <Gap/CRACK>

Since the early 1990s, I have been working on installations with the theme of <Gap/ CRACK>. I understand <Gap/CRACK> as a kind of passage that opens up the question of 'one's existence' in the gaps of life. In my work with <Gap/CRACK>, I have wanted to speak as a subject of feminine writing. This has led to the publication (four times) of booklets in the form of monographs, which recount the process of planning and executing spontaneous 'projects'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nature over the course of a year, such as <CRACK: 12> (2012), a monograph that substitutes the 393 characters of the National Education Charter with wandering and fragmented special characters, and <393_Ellipsis> (2014), in which the artist attempt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her unfamiliar self in the public sphere for 251 days of the year. minus holidays, even if the conversation with herself is filled with speechlessness and stuttering. In addition, in the <Gap/CRACK> series, which is organically installed in various places, I have been adding fragments by sewing and sewing, based on motifs such as earthenware patterns, farming equipment related to folk culture, and stilts. In particular, the earth as <Gap/CRACK> is a fragment that is constantly separating and fusing, and I wanted to reveal the process of going my own way without knowing when, how, or where I will arrive.

2. <Follow the crack>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FOLLOW THE CRACK, is a subversion of the command "Follow the Rabbit" which originated from Lewis Carroll's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The journey of following the rabbit has been replaced by a journey of following the <gap/CRACK>, which is understood as a portal to another world and a starting point for reconstruction rather than disconnection. By stepping into the

FOLLOW THE CRACK — YOUNGHEE LEE

gap, the viewer is invited to confront their own cracks and embark on a journey of reassembling the fragments of meaning that have been left behind. <The primary medium of the exhibition FOLLOW THE CRACK is photography - photographs that are shaken and out of focus. It is commonly said that a shaky photo is a failed photo, and cameras have an anti-shake function and are sensitive to out-of-focus, dust, etc.

As I enter old age, I will probably be faced with shaky hands, blurry vision, out-of-focus eyes, and certain marks such as age spots on my flabby, dried-out body. My memory will be blurred, and I will experience the flatness of time and space in space with my whole body. If the general attitude of photography is anything to go by, old age may be a photo to be discarded and thrown away. But I wanted to confront it head-on. I crack it open with my hand, shake it, and stick the lens in a place where it's not open to the eye. Maybe it's a crack in life. Flat-printed photographs on backed mineral cloth don't look quite as vibrant. The colors that creep into the cloth don't compare to professional photographic paper, which tries to bring out all the elements of color as much as possible. The colors seep into the cloth and into each other, giving it a washed-out look. The black dots dotting the raw mineral cloth emphasize the dirt and marks, perhaps. The use of the paper as a backing for frames is also symbolic to me: flat-printing on this generous material, and daring to mimic the color schemes of oriental pai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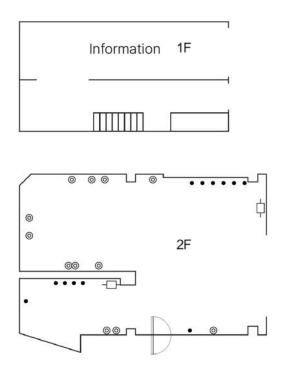
When I flip through an old photograph, there's someone's notes, a condensed record of important events. I've written my name over and over again, like a cursive scribble, on the back, and I've written the date, too, a gesture of old age, when maybe I'll lose my name, maybe I won't remember the date. I let the light shine through it, so that it would be subtly revealed. Then, rather than dusting it off, I dirtied it up as much as I could (ink splatters, etc.) and stuffed it with wadding to create a lush volume. The surface is not smooth and smooth, and the bumpy surface is like a tattered garment or quilt that has been stuffed with cotton for a long time in the cold winter.

Perhaps the gesture of the old man in the wavering gaze is no different from the gesture of Alice in Wonderland, who experienced the layers of memory, cracks in the senses, and transformation of existence through the <gap/CR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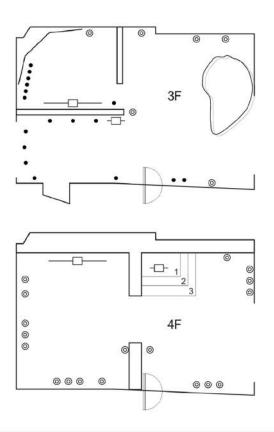
Floor Plan

플로어 플랜



FOLLOW THE CRACK — YOUNGHEE LEE

● 복합매체 Mixed media - 영상 Video • 사진 Photo 임채설치 Installation



FOLLOW THE CRACK - FLOOR VIEWS

FOLLOW THE CRACK - 층별 이미지

1 Floor

1층

	Information 1F	I.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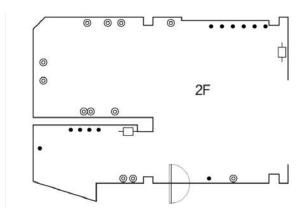


전시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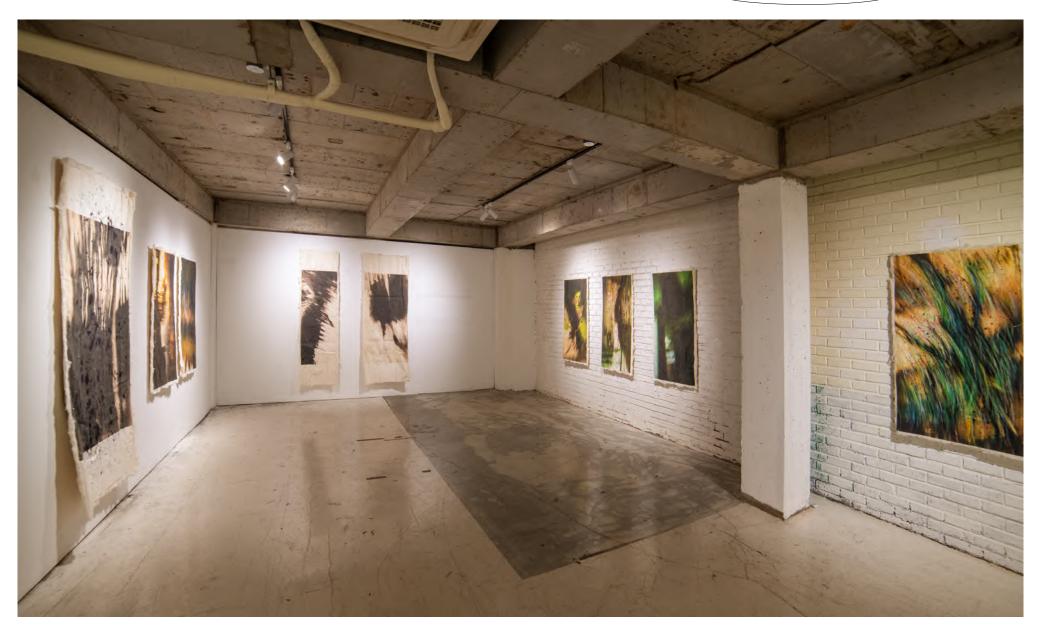


2 Floor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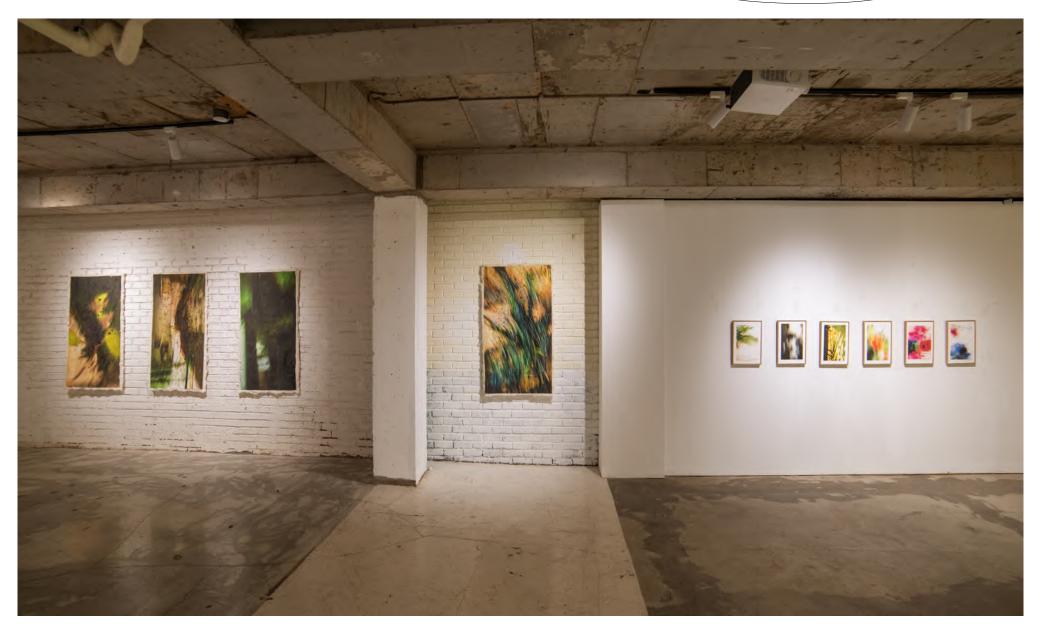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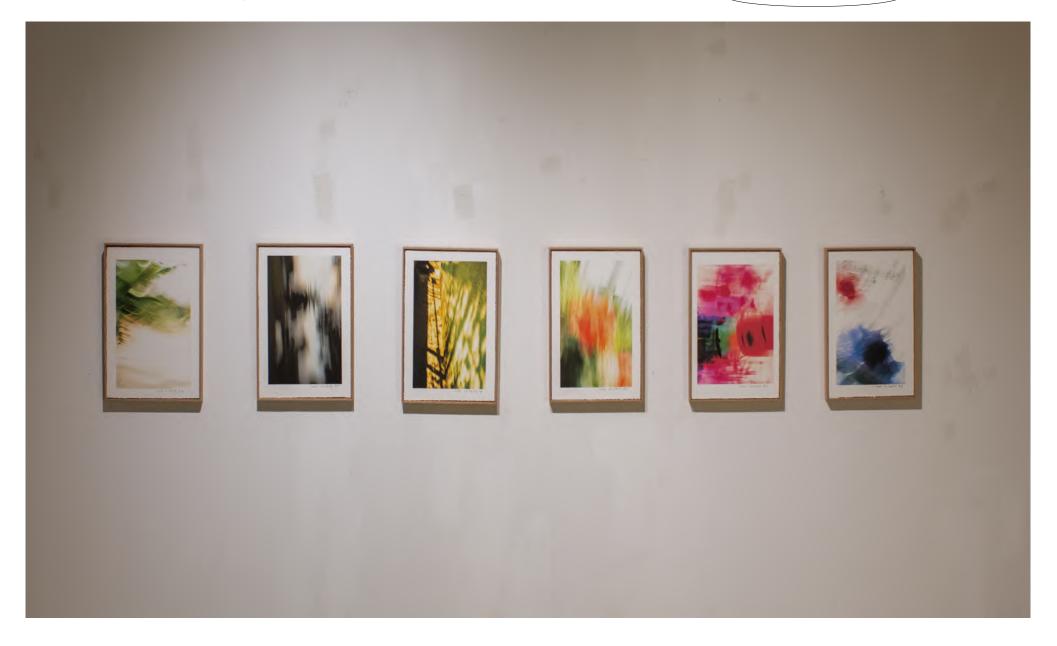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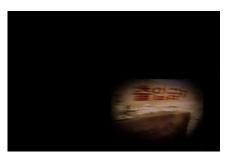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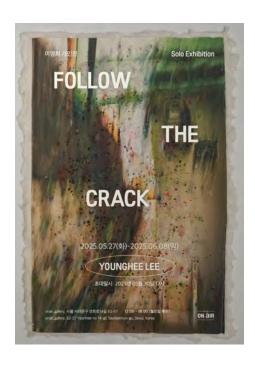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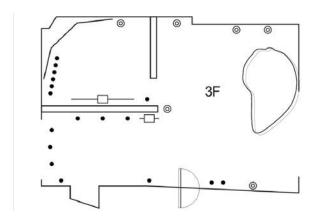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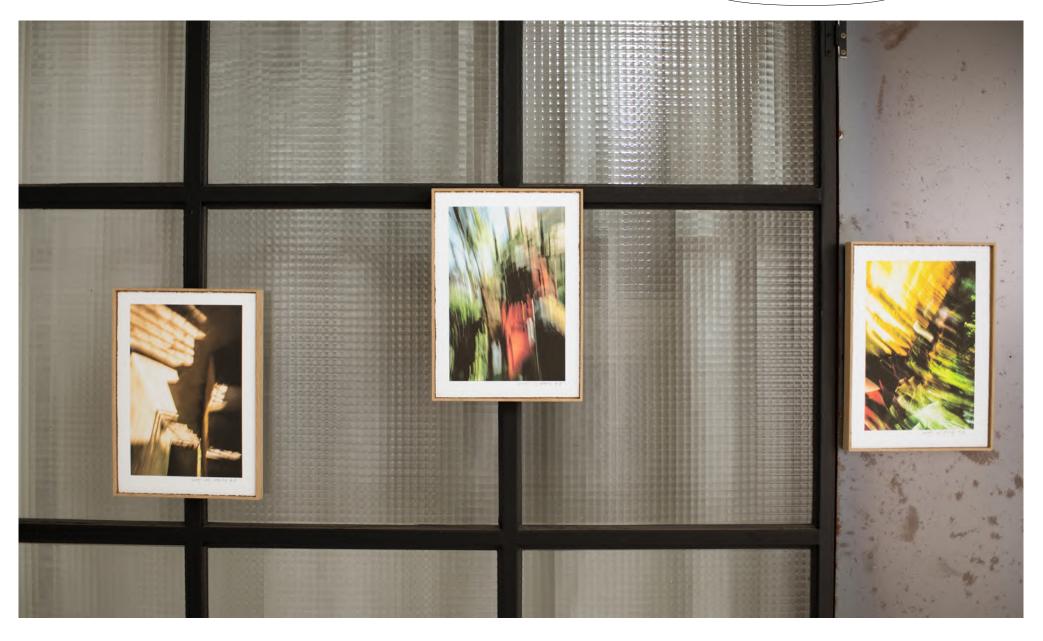




3 Floor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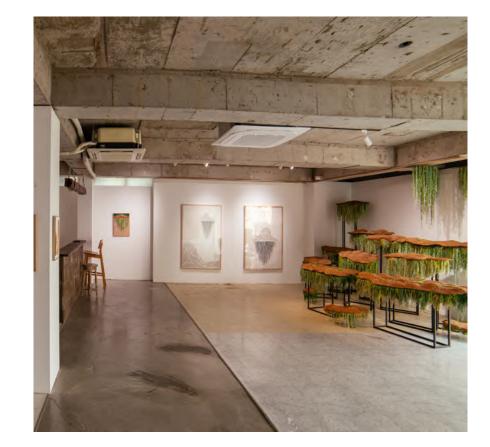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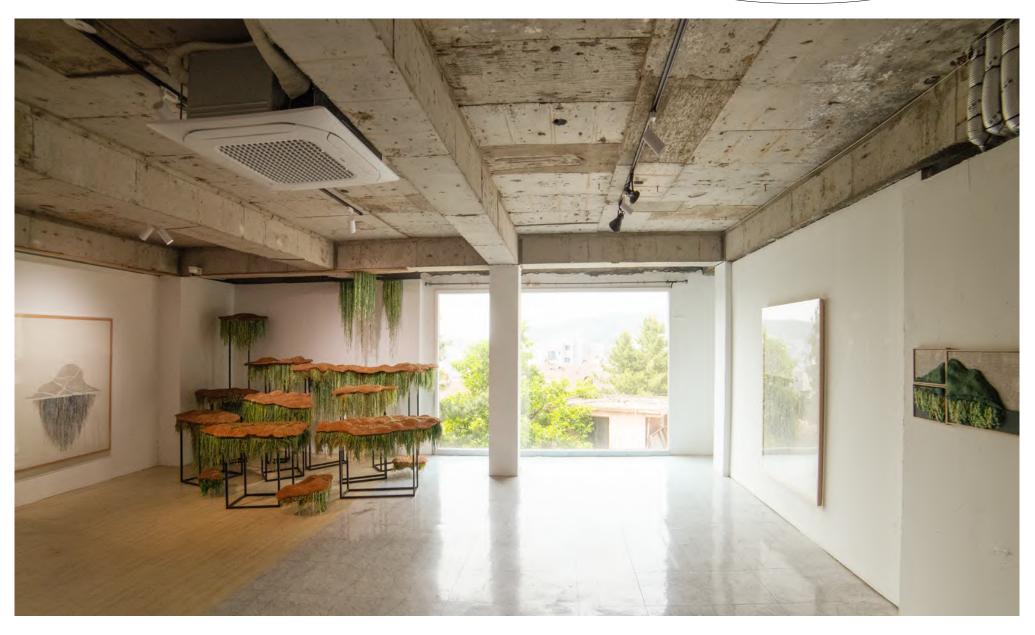






Collage of newspaper cut outs





Exhibition View ONAIR gallery 3F 전시장 전경

















video stills



CRACK 2025

단채널 영상 Single-channel image

00:01:18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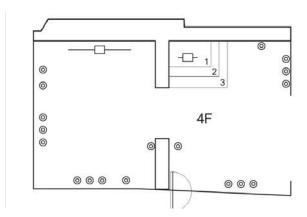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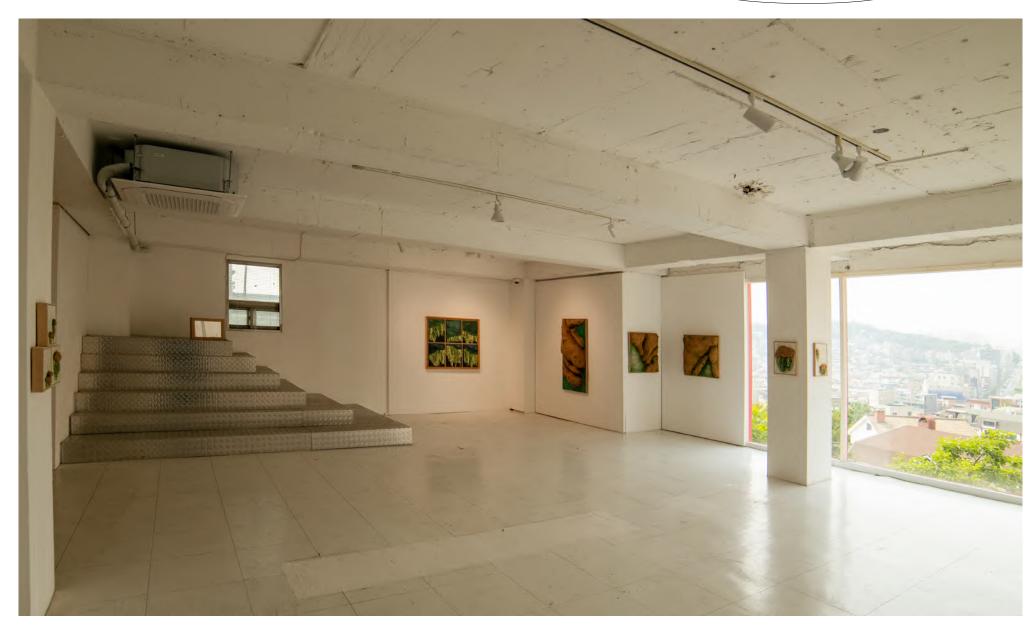


4 Floor

4층







Exhibition View ONAIR gallery 4F 전시장 전경



ONAIR gallery 4F Exhibition View 전시장 전경





Follow the crack	디스플레이 모니터 Display Monitor	46×29cm(액자포함) 46×29cm(framed)	00:03:30	2025
틈_세번째 대지 Crack_The 3th land	혼합매체 mixed media		60×120cm	2018
Crack_Fly hight	신문스크랩, 혼합매체 newspaper cutting, mixed media		각 65×65 cm each 65×65 cm	2018



ONAIR gallery 4F Exhibition View 전시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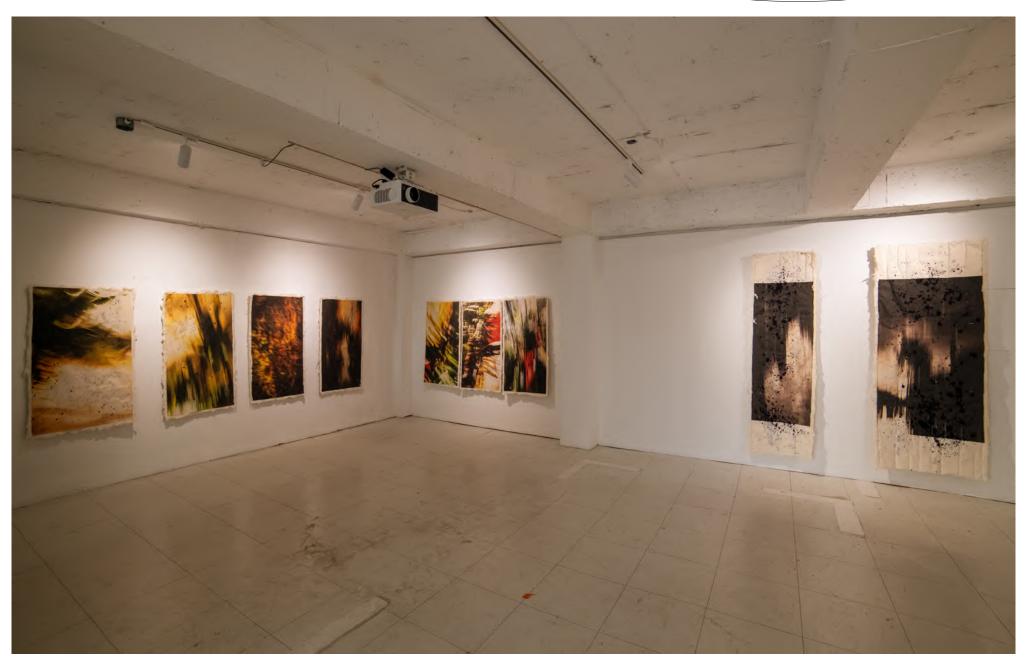
Cr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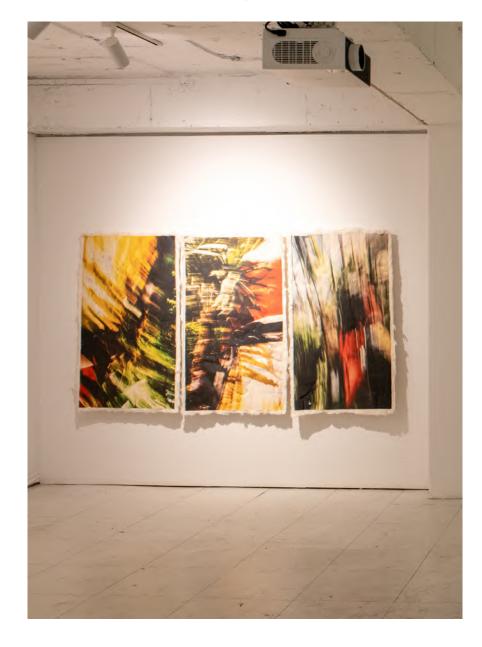




2018









Follow the crack 천 위에 UV 평판 인쇄, 바느질, 배접광목천, 솜, 오일 파스텔, 잉크 64×200cm, 84×200cm 2025 UV flatbed print on cloth, sewing, cotton, oil pastel, ink





video stills































Text



증명의 균열

박소호 / 평론가, 예술공간 의식주 디렉터

1. 주름

시간은 언제나 몸 언저리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낸다. 가죽과 피부에 새겨진 주름은 단지 노화의 흔적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 생이 통과 해 온 밀도이자, 수분을 잃어가며 생성되는 생물학적 지층이며,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의 이력서이다. 늙음이라는 상태는 수분이 줄어드는 일종의 생물학적 현상이다. 인간이라는 유기체는 생애 내내 수분을 흡수하고 저장하며 외부와 연결되지만, 늙음은 그 수용체가 건조해지는 과정이다. 이 물리적 마름은 땅의 갈라짐, 피부에 새겨진 주름, 오래된 사물의 표면에 나타나는 크랙(crack)이다. 작가 이영희는 그 갈라짐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확대한다. 이 균열은 내면과 외면, 주체와 객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포개는 진자운동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단지 쇠퇴의 흔적이 아닌, 기억과 경험이 축적된 시간의 주름이다. 저장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며 건조해지는, 곧 균열과 갈라짐이 생겨나는 땅의 갈라짐과 유사한 생명의 주름, 오래된 사물의 표면에 나타나는 크랙(crack)은 작가의 시선 안에서 하나의 질감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이 질감은 더 이상 정지된 이미지에 머물지 않는다. 사진조각과 파편들로 구성된 그의 작품은 공간 이곳저곳에 투사되어 현실과 비현실, 평면과 입체, 이미지와 기억의 경계를 흔들리게 한다.

2. 흔들리는 시간

작가 이영희는 자신의 작업에서 균열을 메우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펼쳐 보이며 스스로의 주름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사진과 드로잉, 그리고 종이, 천, 빛(영상)의 질감을 병치하여 잠시 잊고 있었던, 혹은 저 멀리 사라졌던 오래된 밀도의 감각을 불러낸다. 그린 면을 뒤집어 보여주는 배체 기법의 활용을 통해 지나간 것을 기억하고, 사라질지도 모를 지금의 시간을 위해 슬며시 자신의 손짓을 스미게 한다. 깨끗하게 빨아내거나 먼지를 털어내기보다, 오염과 흔적을 강조하여 매끈하지 않지만, 오래된 겨울을 간직한 솜이불의 질감을 발산하게 한다. 이 흔들리는 피부는 빛에 의해 변화되고,

다시 어둠으로 사라진다. 그의 화면은 오랜 세월 동안 빛에 노출된 인간의 껍질 속에서 끝끝내 밝히지 못한, 혹은, 뒤로 숨어버린 사라짐과 언제나 빛의 뒤안길에 자리하고 있는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얇은 장막들은 어딘지 모르게 포근하고 온화한 촉감을 발산한다. 통증과 고통은 반전되고, 상실은 또 다른 피부로 덧입혀진다. 불완전한 것, 미완의 것, 그러나 더욱 깊은 밀도로 존재하는 것. 그것은 긴 시간 봉인되어왔던 불안의 공간들이 엮어낸 연대기이다. 이곳에서 멈춰졌던 시간은 다시금 앞으로 흐른다. 평면과 입체의 경계는 흐려지고, 가상과 현실, 실재와 상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피부가 만들어진다. 더 이상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 균열되고 흔들리는 표면을 다시금 허용한다. 빛과 이미지가 흘러가며 만들어내는 '이중의 피부'는 우리가 놓쳐온 감각들을 다시 상기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감각과 삶의 주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작가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연민으로 두터운 시간을 꿰매고 있다.

3. 증명

작품의 매체로 사용되는 솜, 장지와 광목천, 그리고 사진은 모두 시간의 층위와 밀접한 미디어다. 작가는 기억 회상의 작동 방식을 따르면서 조각난 필름을 붙여 나가듯 공간 재구성한다. 장면을 다루되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않고 이면의 풍경과 부유하는 것들의 잔해들을 겹친다. 파편적인 언어들, 흔들리는 이미지를 서로 엮어내어 아직 사라지지 못하는 것들을 응시한다. 근육과 피부의 이음처럼 화면을 따라 흐르고 흔들리는 화면은 시선의 불안을 기저에 두고 있지만, 거울과 같이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고 있기에 연민의 자세와 다지게 한다. 이는 단지 타자와 외부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내부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수용과 허용의 시선이다. 그는 결국 자신에게 새겨진 균열을 통해 타자, 즉 너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층위를 넘나들며 증명하고 있다. 그가 만들어내고 있는 공간은 장면들을 서로 쌓아 만들어낸 일종의 레이어가 가지는 물리적인 구조에 있지 않다. 연결된 그물망, 기억의 틈, 존재의 흔들림이 고스란히 전이된 피부이며, 지나온 시간의 기록이자 초상이다. 작가는 그려질 수 없는 것, 흩어진 것, 사라져가는 것들의 편에 서 있다. 주름진 삶의 시간, 건조한 사물의 감각, 잊혀진 기억의 조각들에 대한 작가 이영희의 연민은 단지 회상에 머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균열과 부유하는 것들, 이내 사라지지 못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다독임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만질 수 있다. 하지만 손에 잡혔던 것들은 이내 하나둘씩 사라지고 만다. 몸 또한 시간의 흐름에서 너무나 연약한 파편에 불과하다. 이영희의 작업이 증명하듯, 갈라진 틈과 주름진 표면 위에는 살아온 날들의 표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오래된 옷자락이 바람을 품고, 빛바랜 사진이 여전히 어떤 온도를 간직하듯, 균열은 사라짐이 아닌 존재의 또 다른 방식으로 남는다. 그것을 만질 수 없다 해도, 느낄 수

FOLLOW THE CRACK YOUNGHEE LEE

있고, 흘러가는 시간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작가는 그 어렴풋한 울림에 시간의 바늘을 꽂아 꿰맨다. 한 땀 한 땀 지나온 시간에 감각을 더하고, 사라질 운명이던 기억에 형체를 부여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질문하게 된다. 무엇을 잃어왔으며, 무엇을 아직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잔상 안에서 비로소 마주하게 된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살아 있는 무언가, 주름진 삶의 피부 아래로 흐르고 있는 말들, 접힌 채로 남겨진 시간의 조각들, 그것들은 이윽고 다시 떠오른다. 사라지는 법을 유예한 채, 우리 앞에 다시 고요히, 그러나 분명하게.

The Crack of Proof

Soho Park / Art Critic, Director of Art Space necessarise+

1. Wrinkles

Time always creates cracks from underneath the body. Wrinkles on leather and skin are not just signs of aging; they are the density of a life, the biological strata created by the loss of moisture, and the resume of time as the human organism moves toward death. The state of old age is a biological phenomenon of water loss. The human organism absorbs, stores, and connects to the outside world throughout its life, but aging is a process in which those receptors dry out. This physical dryness is manifested in cracks in the ground, wrinkles in the skin, and cracks on the surface of old objects. The artist does not hide the cracks. Rather, She reveals them, magnifies them. This crack creates a pendulum movement that encompasses the inner and outer world, subject and object, past and present at the same time. These are not just signs of decay, but wrinkles in time, where memories and experiences have accumulated. The wrinkles of life, the cracks that appear on the surface of old objects, similar to the cracks in the ground that dry out as the amount of moisture they can store diminishes and cracks and fissures appear, coalesce into a texture under the artist's gaze. And this texture is no longer a still image. His works, composed of photographic fragments and debris, are projected all over the space, shaking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unreality,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image and memory.

2. Shaky Time

Shaky photographs with fragments of moments inscribed on them are covered with a fine fluff. The lines sewn on top of them reveal a convex volume, and once again, the waveforms of unstable and shaky time cover the screen. The artist has tilled the soft ground and restored the past to reveal a portrait of herself floating in time that is once again in flux. The so-called

failed photographs, the result of embracing the camera's shakiness and blur, are actively utilized in this exhibition. Some of the installed images are site-specific works that capture niches around the exhibition space, but these are transformed by the artist's shaky hands into abandoned and unknown passages. The artist further enters the crevices of this imperfect world, summoning the countless shakes beneath the skin and shells that have long been hidden. The tilted horizons, shaky screens, and fragmented compositions reproduce errors and cracks, rejecting the myth of the 'perfect'. In her work, Younghee Lee does not strive to fill in the cracks; rather, she unfolds them, making her own wrinkles transparent. By juxtaposing photographs and drawings with the textures of paper, cloth, and light(video), she evokes a sense of old densities that have been forgotten for a while, or that have disappeared into the distance. Through the use of the double-body technique, which shows the painted side upside down, she remembers the past and gestures to the present, which may disappear. Rather than being washed clean or dusted off, the dirt and marks are emphasized, giving off the texture of a down comforter that is not smooth, but old and worn. This shifting skin is transformed by light, and then fades back into darkness. His paintings speak of the human shells that have been exposed to the light for so many years, of the disappearance that never comes to light, or the shadows that are always behind the light. Yet these thin veils somehow radiate a cozy, gentle touch. Pain and suffering are inverted, loss is covered with another skin. It is a chronicle of the spaces of anxiety that have been sealed for a long time, a chronicle of the incomplete, the unfinished, but present in a deeper density. Time, which was stopped here, flows forward once again. The boundaries between the plane and the solid are blurred, and a new skin is created that crosses virtual and real, real and imagined. No longer a fixed background, it once again allows for cracked and shifting surfaces. The 'double skin' created by the flowing light and images invites us to recall the sensations we have missed, and in the gaps, we look again at our own senses and the wrinkles of life. In this way, the artist stitches together a thick layer of time with compassion for the things that disappear.

3. Proof

Cotton, jangji and kwangmok cloth, and photography are all media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layers of time. The artist reconstructs space as if pasting together fragmented film, following the way memory recall works. She handles the scene but does not stare at it directly, instead superimposing the landscape behind it and the floating remnants of things. Fragmentary languages, shaky images, are woven together to stare at things that cannot

yet disappear. The screen, which flows and shakes along the screen like the joints of muscle and skin, is based on the anxiety of the gaze, but it also reflects itself like a mirror, which leads to a posture of compassion and solidification. This is not just sympathy for the other and the outside, but an accepting and permissive gaze that recognizes the imperfections of the inside. He proves, on many levels, that it is possible to look through the cracks in oneself to the other, the you. The space he creates is not in the physical structure of layers of scenes stacked on top of each other. It is a web of connections, a gap in memory, a skin that has been metastasized with the shaking of existence, a record and portrait of time that has passed. The artist stands on the side of what cannot be painted, what is scattered, and what is disappearing. Lee's compassion for the wrinkled time of life, the dry sensation of things, and the fragments of forgotten memories does not stop at reminiscence. It is a question and a caress to ourselves, to the cracks and floating things that are carved into the body and mind of all of us, here and now, that do not disappear.

활짝 열리는 비밀의 문

이선영 / 미술평론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명령어 'Follow the Rabbit'의 변주인 <FOLLOW THE CRACK> 전은 전시가 열린 연희동 ON AIR의 장소성과 밀접하다. 어디든 초행길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미로이기 마련이지만, 이곳의 장소성은 특이하다. ON AIR는 주택가와 대학의 경계선, 즉 주택가 쪽에서도 캠퍼스 쪽에서도 막다른 길에 위치한다. ON AIR는 그 사이에서 일종의 비공식 통로 입구로 열려있다. 대학이나 마을에 가기 위해 지름길을 통과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은 물론, 전시 관람을 위해 그곳을 찾는 관객에게 여정 자체가 독특하다. 작가는 이 여정 또한 순발력 있게 작품으로 만들었다. 원래 이름에도 '연희'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던 그 학교는 동서남북에 널찍한 '공식' 교문이 있다. 시스템은 공식적인 것만 운용하려 하겠지만, 마을과의 경계가 산등성이를 따라 워낙 넓은 지역에 걸쳐있기에 또 다른 통로는 누군가에게는 필요하다.

문은 크든 작든 공식적이든 아니든 근본적인 상징이다. 천국의 문, 지옥의 문, 등용문 등등 인류의 상상계에서 문은 핵심적이었다. 작가가 참고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차원을 이동하는 문을 비롯하여 화이트홀/블랙홀 같이 우주적인 차원에 이른다. 대개 닫혀있는 그 문은 사람만 자유롭지 않지, 이 전시 공간이나 작품이 품고 있는 타자들 중의 하나인 고양이들은 얼마든지 왕래한다. 이모저모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공간에 만약 하나의 공식적인 통로만이 고수된다면, 이는 권력에의 의지가 깔린 것이다. 시스템은 통과를 조절한다. 길(방법)을 하나로 제한할수록 시스템은 강화된다. 일상에서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고급 아파트와 보통 아파트 사이의 보이는/보이지 않는 장벽 속에서 큰길과 지름길 사이의 갈등이 있다. 거시적으로는 세계를 넘나들며 이익을 창출하는 자본과 이동에 극도의 제한을 받는 노동의 대립이다. 전시장 주변 대학의 공식 문들 중에도 몇십년 전에는 쪽문이었던 기억이 있다.

없던 길도 누군가 계속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작가는 '번듯한 간판도 없었는데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번지수로 확인을 했다'고 기억하는 전시장은 일단 들어가면 연희동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을 가진 멋진 곳이다. 작가는 전시장만큼이나 흥미로운 '건물벽과 벽 사이의 좁은 골목'에 관심을 둔다. 한 사람 겨우 지나갈 그 틈새는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었다. 길 아닌 그 길을 통과하면 갑자기 시야가 넓어지며 예상 밖의 장면이 펼쳐진다. 작가는 그 길목에서 토끼굴로 내려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통로/틈새'를 연상한다. 전시 준비를 위해 그곳에 처음 방문한 이 마술적인 장소에서 영감받아 기존 작업과의 연결 지점을 찾아냈다. 전시는 새로운 작품과 그와 관련된 기존의 작품을 재배치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읽고 쓰는 과정이다. 낯선 어딘가를 찾아가는 여정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행복의 파랑새는 이미 곁에 있을 수도 있다.

예술에는 전대미문의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지만, 자신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 작품으로 나오기 힘들다. 이영희의 작업에서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의식을 흐릿하게 하는 쌍방향의 변주가 상시적으로 일어난다. 정신분석은 정상/이상의 경계가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로렌초 키에자 (Chiesa, Lorenzo)는 『주체성과 타자성; 철학적으로 읽은 자크 라캉』(2012)에서 라캉은 모든 주체가 잠재적으로 정신증자이며, 부수적인 봉합을 통해서만 이 조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주체는 오로지 절단의 간격 속에 있다'(라캉)는 언명에는 이영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틈/크랙이 있는 것이다. 라깡의 정신분석은 명확한 자아를 확인하거나 찾고자 하지 않는다. 통합된 자아 자체가 상상적 소외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함으로서 '무의식의 주체를 실현하는 것'(라캉)이다. 인간은 완전한 주체도 타자도 될 수 없고 그 경계선상에서 헤맸다. 예술가는 이러한 방황을 즐길만한 실험으로 전환한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언어 자체의 분열적 조건에 직면하게 된다. 주체 또한 언어처럼 과정 중에 있다. 사라 살리(Salih, Sara)는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2007)에서 만약 주체가 언어속에서 구성되는 것이고, 언어가 불완전하고 끝나지 않는 것이라면 주체 자체도 이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영희의 작품 또한 현대의 심리학, 언어학의 가설처럼 형성 중인 언어적 구조와 밀접하다. 작품은 '일관된 존재론적 총체가 분열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신호들'(사라 살리)로 가득하다.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은 불가능한 욕망 및 결핍으로 분열된 주체와 투명하고 완벽한 의식을 가진 주체를 대조한다. 이 중에서 예술가는 어느 편에 가까울까. 이영희 또한 자신이 보낸 생애의 주된 시간을 사회가 인정하는 주체로 살아왔다. 수십년간 그녀에게 작업은 통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었고 틈이 나면 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이 전시의 키워드에 속하는 '틈'은 일종의 해방구와도 같다.

경계를 확실히 함으로서 이익을 얻는 집단에게 틈은 카오스로 이어질 붕괴의 조짐이다. 경계 안에서 충실한 삶과 달리, 경계 위의 존재인 예술은 금지나 금기와 맞딱뜨린다. 한편은 안전하지만 지루하고 다른 한편은 불안정하지만 흥미진진하다. 물론 불안정하고 지루함, 안전하면서 흥미로움이라는 또 다른 조합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예술의 존재 조건은 그러한 시험 문항의 선택같이 여유롭지 않으며 실제의 삶 또한 그러하다. 지배적 질서에서 틈은 생겨서는 안되고 이를 위해 더 거창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대비가 또 다른 억압과 조절을 낳는다. 준비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에너지를 묶어두고 이를 전용하는 지배 집단과 이를 추종하는 다수는 늘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막을 변화시키고 싶은 측에게 금기는 위반의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작가에게 틈은 옴짝달싹할 수 없을 것같은 현실의 질서에 변형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기대의 진원지다.

FOLLOW THE CRACK — YOUNGHEELEE

'<틈/CRACK>'은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포털이며 단절이 아닌 재구성의 시작점으로 이해한다. 작가에게 틈은 1990년대 초반부터의 주제였다. 이는 전시와 동시에 출판 형식의 책자들을 발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영희의 작업은 쓰기가 깔려 있는데, 글자나 기호는 그자체가 분절화된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문장은 빈칸(띄어쓰기)이 있어야 제대로 읽혀진다. 차이의 체계로서의 언어의 특성과 더불어 예술적 전복으로서의 틈이 있다. 그것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인 상징계에 구멍을 뚫는 행위로서의 작업이다. 심리학과 언어학, 인류학 등에서 상징적 질서는 '인간 문화의 법적 짜임새' (라캉, 레비스트로스)로 정의한다. 상징적 질서 또한 언어처럼 무의식적 무의식적 구조로 이해된다. 따라서 언어를 다루는 작업의 실천적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2016년에 터진 세월호 사건은 수년간 이영희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소재였다.

이번 전시에서도 빙산의 일각처럼 표현된 세월호 관련 기사들 아래로 자라는 줄기들은 드로잉 뿐 아니라 부조와 설치 등으로도 나타난다. 그러한 영웅적 위반의 행위 외에 자신이 처한 몸의 상황도 포함되어 있다. '노년에 접어든 저는 어쩌면 손이 떨리며, 흐릿한 시선에 초점이 나가고, 푸석하고 말라가는 온몸에는 검버섯과 같은 어떤 오점이나 흔적들이 나타나는 일들을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이를 당당히 맞닥뜨리고 싶었다'고 말한다. 일종의 '삶의 크랙'을 인정하고 통과하면서 '기억의 층위, 감각의 균열, 존재의 변형을 경험'하고자 한다. 이 틈 사이로 봇물 터지듯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다. 모든 생명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모가 아닌 것이 없다. 고정되어 보이는 것들은 변형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일 뿐이다. 변형의 자리로서의 틈은 막혔던 영감에 주저앉아 있다 신나게 내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작가뿐 아니라 그 작품을 보고 나름의 대화적 상상력을 가동시킬 관객 모두에게도 틈은 필요하다.

이영희에게 틈은 현상 유지가 아닌 변화를 위한 문턱이다. 물론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를 그 문턱은 위험하기도 하다. 하지만 작가는 순수가 배제하려는 것들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품는다. 이번 전시의 주요 매체는 정상적인 사진의 문법과 달리 흔들렸으며, 이미지가 안착되어야 할 매끄러운 표면은 누더기 이불같은 모양새다. 세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듯한 사진은 완전함을 보증할 순간이 아니라 지속의 과정에 노출된다. 이번 전시의 주된 매체인 사진은 대부분 흔들리고 초점이 나갔다. '핸드헬드 촬영으로 만들어진 사진 속에는 흐릿한 초점, 비틀린 색감, 기울어진 수평이 존재'하는데, '이는 색의 본질, 사물의 근원적 형상, 시간의 진동을 감각하게' 만든다. '흔들리는 시선 속 몸짓은, 자신의 감각적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그것을 예술로 전환하려는 능동적 수용의 흔적을' 드러낸다. 순간을 중시했던 철학자 바슐라르(Gaston Louis Pierre Bachelard,1884)는 지속을 일종의 오염이나 타락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모더니즘의 순간의 미학은 미학적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로 상대화되면서, '지속'(베르그송)은 또 다른 평가를 받는다. 모든 진실 또는 현실은 결정적 순간이 아닌, '차이와 지연의 계열'(데리다)이 된다. 또는 해체된다. 시간적추이만이 '현진실'(크리스테바)을 진면모를 입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이영희에게 현실은 다공질이다. 입구와 출구가 정해져 있지 않다. 또는 만약 그것이 있더라도 찾기 힘든 미궁이다. 투명한 직선과 달리 불투명한 미궁은 여성적 상징이다. 로버트 A. 존슨(Robert A. Johnson)은 『신화로 읽는 여성성 SHE』(2006) 에서 중심에 도달할 때까지는 도망칠 수도 휴식도 없는 미궁은 인간 삶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보면서, 궁극적으로 삶의 도달점은 신비로운 자궁이라는 중심이라고 말한다. 로버트 존슨에 의하면 미궁은 미궁 속으로의 여행을 완수하는 사람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변화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서 주요 매체가 된 사진은 '결정적 순간'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만, 작가는 그것을 배반한다. 물론 사진이 순간을 포착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이번 전시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 안양에서 이어질 전시부제는 '흔들리는 순간'이다) 광목천에 출력한 사진은 솜이불처럼 재봉질 된다. 물론 재봉질은 어떤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사용하는 자유 드로잉에 가깝다. 이미지는 이중삼중으로 불투명해지고 어떤 기운이 고이거나 흘러가는 굴곡만이 남는다. 어떤 이미지든 촉각성이 증대되며 도톰하고 굴곡진 표면은 온기를 보유한다. 배접 광목천에 출력된 사진(UV 평판인쇄)은 인화지의 색감과 달리 바랜 듯이 보인다. 생 광목천에 박힌 검은 점들은 오염과 흔적을 강조한다.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배접 광목천은 표구에서의 배경천으로 쓰여지는 주변적 재료이다. 여러 작업으로 결과된 울퉁불퉁한 표면은 '추운 겨울 솜을 채워 오래오래 겨울을 난 헤진, 솜이 비져나온 누빈 옷'과 같다. 액자 안에 넣은 사진들은 흔들림이 강해 거의 회화적이다. 결과는 추상적이지만 시작은 현실이다. 골목길부터 식물원까지 작가가 찾아다니는 장소는 현실의 어느 곳이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최초의 지시대상에 속한 형태와 색감, 명암 등이 반영된다. 목적지는 불확실해도 처음의 출발은 있다.

예술은 나로부터 시작지만 도달하는 곳은 기존의 내가 아니다. 대개 나를 확인하는 작업은 대개 그렇고 그런 그림 일기같은 평이한 결과물에 머문다. 나를 향한 여정은 직선은 아니며 거듭되는 우회로를 거친다. 이번 전시에 영상은 사진의 연장인데, 그 흐릿함은 연속적이다. 한낮의 빛이 들어오는 유리창 옆에 상영되는 영상을 위한 검은 암막은 없다. 그래도 작품에 등장하는 고양이의 눈빛은 강렬하고, 영상으로 확대된 눈은 수많은 크랙으로 가득하다. 고즈녁한 전시장에 울려퍼지는 고양이 소리는 자연과 문명의 경계에서 진화해온 타자의 현존을 일깨운다. 고양이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대로(大路)가 아닌

FOLLOW THE CRACK _______ YOUNGHEE LEE

자기들만의 길로 다니며, 월등한 운동감각으로 인간과는 다른 시야를 확보함으로서 다른 가축과 달리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 영상은 그 자체로는 명확한 구성을 가지지 않지만, 어느 부분부터 봐도 상관이 없고 어떤 장면이든 다른 작품들과 상호보완적이다. 전시장의 이런저런 형식의 작품들은 하나에 완벽하게 담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하는 집합적 관계를 가진다. 굳이 털어내지 않는 점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틈의 시작일 수 있다. 대지나 식물 이미지가 가득한 그의 전시장에서 점은 씨앗같은 느낌이다. 특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재봉질처럼 흩뿌려진 씨앗의 이미지는 다 자란 이후에야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씨앗같다. 드로잉은 현실로 나와서 설치작품이 된다.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은 확실성을 요구한다. 사진은 아무리 흔들려도 인덱스로서의 특징이 남아있다.

이영희의 작품은 손으로 꾹꾹 눌러쓰는 필기감, 온몸을 진동하며 내달리는 재봉질, 원초적인 대지나살의 느낌이 나는 재료 활용이 특징이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AI 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작가는 새로운 미지의 길에 열광한다. 무엇보다도 이영희는 자신이 던져진 상황과 씨름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왔다. 붕 떠 있는 무중력적 시공간이나 초월성, 관념성은 지양된다. 그 모두는 우연적 순간이 고정된 것, 또는 물화된 것에 불과하다. 작가는 고정이 과정이 되는 틈을 노린다. 잠재적 틈을 현실화하고, 현실적 강고함을 흔든다. 미술보다 더 객관적으로 여겨지는 사진은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설치작품에서 대지나 살 비슷한 덩어리들은 어디에서 성장 또는 퇴행의 싹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유연하고 유동적이다. 대지를 조각 내어 떼어낸 듯한 설치작품들은 아래로 늘어진 줄기들의 초록 색감 때문인지 위보다는 아랫부분이 더 생동감 있다.

왕겨를 활용한 거칠거칠한 대지 형상은 지상과 지하의 에너지를 가득 머금은 물질로 그자체가 경계면을 이룬다. 물질과 에너지는 물리학적으로 호환된다. 여러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천정에서 내려오는 줄기들은 설치작품이 공간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장(場)이 되는 것임을 말한다. 부풀어 오르거나 아래로 흘러내리거나 하는 움직임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틀이다. 무한과 유한은 생과 죽음처럼 서로의 이면이다. 그것은 현대 정신분석학이 실재계와 상징계의 밀접한 관계를 가정하는 것과 같다. 벽에 걸린 부조나 드로잉은 여러 차원으로 파생되는 작품 성격을 알려준다. 가령 흔들림 때문에 지시대상보다는 빛과 바람의 느낌으로만 남아있는 사진 이미지들은 대지에 뿌리내리는 식물과의 관계를 말한다. 식물은 빛을 고정시켜 지상에 양분을 공급하고 바람에 씨앗을 날려 보낸다. 동물, 식물, 광물이 중첩되는 이영희의 작품은 서로를 향한 잠재적 동감으로 가득하다.

The Secret Door That Opens Wide

Sunyoung Lee / Art Critic

The exhibition <FOLLOW THE CRACK>, a variation on the command "Follow the Rabbit" from Lewis Carroll's Alice in Wonderland, is closely tied to the location of ON AIR in Yeonhui-dong, where the exhibition is held. Any unfamiliar place is bound to be a maze where excitement and fear coexist, but the location of this place is unique. ON AIR is located at the boundary between a residential area and a university, at a dead end on both the residential and campus sides. ON AIR is open as a kind of unofficial passageway between the two. For residents and students who take a shortcut to get to the university or village, as well as for visitors who come to see the exhibition, the journey itself is unique. The artist has skillfully turned this journey into a work of art. The school, whose original name included the word "Yeonhui," has spacious "official" gates on the north, south, east, and west sides. The system may try to operate only officially, but since the border with the village stretches across a wide area along the ridge, another passage is necessary for some people.

Whether large or small, official or unofficial, doors are fundamental symbols. From the gates of heaven and hell to the gates of promotion, doors have been central to the human imagination. Like Alice in Wonderland, which the artist referenced, doors that move between dimensions extend to cosmic dimensions such as white holes and black holes. While the door is usually closed, it is not only humans who are restricted; the cats, one of the others contained within this exhibition space or artwork, freely come and go. If only one official passageway is maintained in a space where various other methods are possible, this reflects a will to exert power. The system regulates passage. The more the path (method) is restricted to one, the stronger the system becomes. A typical example in everyday lif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main road and the shortcut within the visible/invisible barrier between so-called luxury apartments and ordinary apartments. On a macro level, it is the conflict between capital, which crosses borders to generate profits, and labor, which is

FOLLOW THE CRACK — YOUNGHEE LEE

subject to extreme restrictions on movement. Among the official gates of the university surrounding the exhibition hall, I remember that some of them used to be side gates decades ago.

Even a path that didn't exist before becomes a path if someone keeps walking it. The artist remembers the exhibition space as a place with no fancy sign, but once you enter, it's a wonderful spot with a view of Yeonhi-dong. The artist is as interested in the "narrow alley between the building walls" as he is in the exhibition space itself. That narrow gap, barely wide enough for one person to pass through, was a path where people came and went. Passing through that path, which is not a path, suddenly opens up the view and reveals an unexpected scene. The artist associates that path with "Alice's passage/gap leading down the rabbit hole in Wonderland." Inspired by this magical place during the initial visit for exhibition preparation, the artist discovered connections with previous works.

The exhibition is a process of re-reading and rewriting oneself through the rearrangement of new works and related existing pieces. The journey to an unfamiliar place is also a process of (re)discovering oneself. The bluebird of happiness may already be by one's side.

Art is filled with expectations and fantasies of unprecedented novelty, but it is difficult to produce works that do not exist within oneself. In Lee Younghee's work, there is a constant interplay between the unconscious becoming conscious and consciousness becoming blurred. Psychoanalysis does not view the boundary between normal and abnormal as clear-cut. In Subjectivity and Alterity: A Philosophical Reading of Jacques Lacan, Lorenzo Ciezza states that Lacan believes all subjects are potentially psychotic and can only avoid this condition through secondary suturing. The statement, "The subject exists only in the gap of the cut" (Lacan), contains the gap/crack that Lee Younghee seeks to highlight. Lacan's psychoanalysis does not seek to confirm or find a clear self. Since the integrated self is itself an imaginary alienation, it is by overcoming this that one "realizes the unconscious subject" (Lacan). Humans cannot become complete subjects or complete others, but wander on the borderline between the two. Artists transform this wandering into an enjoyable experiment.

Through language, we encounter the divisive conditions of language itself in the process of becoming human. The subject is also in the process, just like language. In Judith Butler's Philosophy and Melancholy, Sara Salley states that if the subject is constructed within language, and language is incomplete and unfinished, then the subject itself is also incomplete. Lee Younghee's work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linguistic structures that are being formed, as in the hypotheses of modern psychology and linguistics. The work is filled with "signs that point to the fragmentation of a coherent ontological whole" (Sarah Salley).

[Judith Butler's Philosophy and Melancholy] contrasts the fragmented subject with impossible desires and deficiencies with the transparent and perfect consciousness of the subject. Which side is the artist closer to? Lee Younghee has also spent most of her life as a subject recognized by society. For decades, her work was not a given, but something she could do when she had time, so the keyword "gap" in this exhibition is a kind of liberation.

For groups that benefit from clear boundaries, gaps are signs of collapse leading to chaos. Unlike a faithful life within boundaries, art, which exists above boundaries, encounters prohibitions and taboos. One side is safe but boring, while the other is unstable but exciting. Of course, another combination of instability and boredom, or safety and excitement, is also possible. However, the conditions for the existence of art are not as leisurely as choosing answers to test questions, and real life is no different. In the dominant order, gaps should not arise, and for this reason, more grandiose countermeasures must be in place. However, such countermeasures give rise to further oppression and control. Under the guise of preparation, there will always be a ruling group that binds human energy and appropriates it, and a majority that follows them. However, for those who wish to change this defensive barrier, taboos provoke the impulse to violate them. For the artist, cracks are the source of hope that the immovable order of reality can be transformed.

"<CRACK> is understood as a portal to another world and a starting point for reconstruction rather than disconnection." The gap has been a theme for the artist since the early 1990s. This led to the publication of books in conjunction with exhibitions. In particular, Lee Younghee's work is based on writing, where letters and symbols convey messages in their fragmented forms. Furthermore, sentences must have spaces (spacing) to be read properly. Alo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anguage as a system of differences, there is also the gap as an artistic subversion. It is a work that pierces holes in the symbolic order, which is the dominant ideology. In psychology,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the symbolic order is defined as "the legal structure of human culture" (Lacan, Lévi-Strauss). The symbolic order is also understood as an unconscious structure, like language. Therefore, the practical importance of working with language is emphasized. In particular, the Sewol ferry disaster that occurred in 2016 has been a subject that has lingered in Lee Younghee's mind for years.

In this exhibition, the stems growing beneath the articles related to the Sewol ferry disaster, depicted as the tip of an iceberg, appear not only in drawings but also in reliefs and installations. In addition to such heroic acts of defiance, the artist also includes his own physical condition. "As I enter old age, I may face trembling hands, blurred vision, and a withering body

marked by spots and scars like liver spots," but 'I wanted to face this head-on,' he says. By acknowledging and passing through a kind of "crack in life," he seeks to experience "layers of memory, cracks in sensation, and transformations of existence." Through these cracks, things flow out like a flood. There is nothing that does not transform, from the birth and growth of all life to its death. Things that appear fixed are simply undergoing a long process of transformation. The cracks, as places of transformation, are opportunities for inspiration that had been blocked to burst forth. Cracks are necessary not only for the artist but also for the audience, who activate their own imaginative dialogue when viewing the work.

For Lee Younghee, cracks are thresholds for change, not for maintaining the status quo. Of course, these thresholds, where anything could burst forth, are also dangerous. However, the artist actively embraces the things that purity seeks to exclude in her work. Unlike the normal grammar of photography, the main medium of this exhibition, the images are blurred, and the smooth surface where the images should settle is like a patchwork quilt. The photographs, which seem to accurately reproduce the world, are exposed to the process of continuity rather than a moment of perfection. Most of the photographs in this exhibition are blurred and out of focus. "The photographs taken with a handheld camera have blurred focus, distorted colors, and tilted horizons," which 'make us sense the essence of color, the fundamental form of objects, and the vibrations of time. "The gestures in the shaky gaze reveal traces of active acceptance that acknowledges one's sensory imperfections and attempts to transform them into art." The philosopher Bachelard, who valued the moment, thought of continuity as a kind of contamination or corruption.

However, as the modernist aesthetics of the moment became relativized as one of the aesthetic ideologies, "continuity" (Bergson) received another evaluation. All truth or reality becomes a "series of differences and delays" (Derrida), rather than a decisive moment. Or it is deconstructed. Only temporal progression can capture the true nature of "present reality" (Kristeva) in a three-dimensional way. For Lee Younghee, reality is porous. There are no fixed entrances or exits. Or, even if there are, they are difficult to find in a labyrinth. Unlike transparent straight lines, opaque labyrinths are feminine symbols. Robert A. Johnson, in *SHE: Reading Women's Sexuality Through Mythology*, views the labyrinth, where there is no escape or rest until one reaches the center, as a representative symbol of human life, and ultimately states that the destination of life is the mysterious womb at the center. According to Robert Johnson, the labyrinth signifies the transformation of the person who completes the journey into the labyrinth, moving from darkness to light, from the moment to eternity, and from ignorance to wisdom.

The photographs placed inside the frame are so blurred that they appear almost painterly. The result is abstract, but the starting point is reality. The places the artist visits, from alleys to botanical gardens, are real locations. Although not entirely clear, the forms, colors, and shades of the original subject are reflected. Even if the destination is uncertain, there is a starting point. Art begins with me, but the destination is not the existing me. Most works that confirm my identity remain as ordinary results, like a picture diary. The journey toward myself is not a straight line but a series of detours. In this exhibition, the video is an extension of the photographs, and its blurriness is continuous. There is no black curtain for the video projected next to the glass window where the midday light enters. Still, the cat's gaze in the work is intense, and its eyes, enlarged in the video, are filled with numerous cracks. The sound of the cat echoing through the quiet exhibition hall awakens the presence of the other, which has evolved at the boundary between nature and civilization.

Cats do not follow the officially designated path(大路) but walk their own way, securing a different field of vision from humans through their superior sense of movement, and thus, unlike other domestic animals, they are not easily tamed. The video itself does not have a clear structure, but it can be viewed from any point and any scene is complementary to other works. The various works in the exhibition space do not attempt to capture everything perfectly, but rather form a collective relationship that compensates for each other's shortcomings. The points that are not necessarily revealed may be the beginning of change. In his exhibition space filled with images of the earth and plants, the dots feel like seeds. Like scattered stitches without a specific direction, the image of seeds is like a seed whose nature can only be known after it has fully grown. The drawings come to life as installation

FOLLOW THE CRACK — YOUNGHEE LEE

works. Paradoxically, uncertainty demands certainty. No matter how much the photograph is shaken, its characteristic as an index remains.

Lee Younghee's works are characterized by the tactile sensation of handwritten notes, sewing that vibrates throughout the body, and the use of materials that evoke the primal earth or flesh. The artist, who is not averse to learning new technologies such as photography, video, or AI, is enthusiastic about exploring new, unknown paths. Above all, Lee Younghee has been working while grappling with the circumstances she has been thrown into. She avoids weightless, transcendent, or conceptual spaces and times. All of these are merely fixed moments of chance or materialized things. The artist seeks out the gaps where fixation becomes a process. She materializes potential gaps and shakes the solidity of reality. Photography, which is considered more objective than art, can be an appropriate starting point. In the installation works, the earth-like or flesh-like masses are so flexible and fluid that it would not be surprising if sprouts of growth or decay emerged from anywhere. The installation works, which appear to have been carved out of the earth, seem more vibrant in the lower part than the upper part, perhaps due to the green hues of the stems hanging downward.

The rough earth-like forms made of rice husks are materials filled with the energy of the earth and underground, forming a boundary in themselves. Matter and energy are physically compatible. Installed at various heights, the stems hanging from the ceiling suggest that the installation is not contained within the space but rather becomes the space itself. The emphasis on movement, whether swelling or flowing downward, is paradoxically a framework. Infinity and finitude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like life and death. This is similar to modern psychoanalysis, which assume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eal and the symbolic. The reliefs and drawings on the walls reveal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the works. For example, the photographic images, which remain only as sensations of light and wind rather than as objects of reference due to their shaking, speak of the relationship with plants rooted in the earth. Plants fix light to supply nutrients to the earth and send seeds flying in the wind. Lee Younghee's works, in which animals, plants, and minerals overlap, are filled with a potential empathy toward one another.

틈의 진화. 영희 우주로

오세섭 / 독립영화감독, 목포대학교 교수

약 20년 전, 우연히 작가를 알게 되었다. 짧게 끝날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인연은 계속되었다. 그러는 사이, 드문드문 전시회를 방문했다. 처음 방문한 전시회는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열렸다. 갤러리 안쪽에서 밖을 바라보았다. 낯설었다. 보는 방향에 따라 익숙한 곳도 낯선 거리가 된다. 그때 처음 본 <틈 CRACK>(2011)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했다. 마치 공중부양하듯 떠 있는 대지와 대지의 틈, 그리고 그 아래 수많은 뿌리들. 마치 날다가 멈춘 우주선 같았다. 「루나 파파」(바크티아르 쿠도이나자로프, 1999)에 등장하는 지붕처럼 말이다. 「루나 파파」는 구습과 싸우는 영화다. 마을은 임신한 소녀 말라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소녀를 쫓아내려 한다. 그때 말라카가 사는 집의 지붕이 우주선으로 변한다. 위기의 순간, 소녀를 태우고 멀리멀리 떠난다. <틈>의 이미지도 비슷했다. 상처받아 갈라진 대지, 하지만 그 틈을 품으려는 대지의 어머니처럼 보였다. <틈>은 꼭 날다가 멈춘 것처럼 땅 위에 떠 있지만 그건 날지 못해서가 아니다. 뒤처져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다.

<=> 연작과 달리 <251_ellipsis>(2016)는 현실적인 이야기다. 누구나 내뱉을 만한 소감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완성되지 않은 단어, 중첩된 글자, 쓰다만 문장을 통해 말이 되지 않은 말을 한다. <름>이 어머니의 포용과 자연의 치유 과정을 보여줬다면, <251_ellipsis>는 소통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시각적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만약 작품 속에 화자가 있다면 두 작품의 화자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51_ellipsis>는 보통 사람이 내뱉는 가벼운 한숨이다. 화를 내는 대신 말을 더듬거나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말을 하지 못한다. 마치 색의 삼원색(CMY)을 모두 섞으면 검은색이 되고 빛의 삼원색(RGB)을 모두 섞으면 하얀빛이 되는 것처럼, <251_ellipsis>에 존재하는 침묵은 말이 말을 덮고 여백이 여백을 덮은 결과다. 결국 작품 속 화자의 말없음표와 더듬거림은 새로운 언어가 되어 대지의 어머니가 겪는 현실의 피곤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리 절망적이진 않다. 'ellipsis(말 줄임)'은 틈을 메우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틈>에 등장하는 틈새의 풀처럼, 현실에서 벌어진 틈을 작가는 투덜거림으로 메우려 한다. 또는 침묵으로 중화하려 한다. 어떤 식이 되었든 우리의 일상인 셈이다.

<251_ellipsis>에서 화자는 자신을 돌아본다.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을까? 지금의 나는 무엇일까? 화자는 현실에서 말을 잃어버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순응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호구(虎口)가 아닐까 의심한다. <251_ellipsis>에서 말하지 못했던 여인은 <호구에 든 여자노인을 위한>(2022)과 <호구와 노루발>(2023)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여성이 겪는 숙명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틈>에 나타난 대지의 어머니는 사라지고 우리 사회의 전근대성을 짊어진 한 많은 여인만 남은 것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작품에 등장하는 호구는 수동적인 호구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호구, 즐기는 호구다. 심지어 마음먹으면 기꺼이 떠날 수 있는 호구이기도 하다. 잠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쓰임을 받기로 한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당당히 호구라고 말할 수 있다. 어쩌면 그 호구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신일지도 모른다.

이제 <떠도는 꿈>(2023)은 새로운 전환점이 된다. <틈>을 떠나 자신을 호구로 명명한 대지의 어머니는 <떠도는 꿈>을 통해 변신에 성공했다. 이건 작가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작업한 아날로그 작품들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3D로 탈바꿈했으며 오프라인을 떠나 온라인에 접속했다.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을 빌어 「창문너머 날아간 100세쯤 여자노인」(2024)이 되었다. 이 100세쯤 먹은 여자노인은 과거 대지의 어머니이자 말더듬이, 호구였던 인물일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품은 채 진화했다. 마치 「공각기동대」(오시이 마모루, 1996)의 주인공 쿠사나기가 안드로이드 신체를 버리고 네트워크의 세계로 이주한 것처럼, 「그녀」(스파이크 존즈, 2014)의 인공지능인 사만다가 인간 세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한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 이번 프로젝트 <FOLLOW THE CRACK>(2025)은 상징적이다. 작가는 이번 작품명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Follow the rabbit'에서 따왔다고 말했다. 토끼를 따라 간 앨리스가 새로운 세계에 당도했듯이, 틈을 따라간 작가가 도착할 곳은 어딜지 궁금하다.

내가 처음 본 <름>은 자애로운 어머니를 연상시켰다. 작가(혹은 작가의 작품) 또한 그런 숙명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점차 분열하기 시작했다. 말을 더듬거나 아예 말하기를 멈춘다. 자신을 호구라 부르며 자조하기도 한다. 이건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다. 80년대의 한국 사회가원했던 캐릭터다. 하지만 작가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분열 끝에 진화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메우려 했던 틈을 좇는다. 그 틈을 탐색한다. 틈 속으로 날아간다. 이러한 변화에는 작가가 새롭게받아들인 영상기술이 함께 했다. 그렇게 탄생한 영상은 그를 멀티버스의 세계로 인도했다. 그곳에는 과거의 어머니 대신 '창문너머 날아간 100세쯤 여자노인'이 있다. 그곳에서 작가는 100세쯤 나이 먹은 여자노인이 되어 창문을 넘고 틈으로 날아간다. 온라인 세계 속 여자노인은 세계의 본질을 깨달은 쿠사나기다. 차원을 넘어선 사만다다. 더 이상 철수가 필요 없는 영희다. 그러므로 <FOLLOW THE CRACK>(2025)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이다. 문 뒤의 세계는 어떨지 궁금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다음 작품이 몹시 궁금하다.



The Evolution of the crack, into the Younghee Universe

Sesup Oh / Independent Filmmaker, Professor, Mokpo University

About 20 years ago, I met the artist by chance. Our friendship could have been short-lived, but somehow it continued. In the meantime, I visited exhibitions infrequently. The first exhibition I visited was held at a gallery in Insadong. I looked out from the inside of the gallery. It was strange. Familiar places become unfamiliar streets depending on the direction you look. It was the same with <Time Crack> (2011), which I saw for the first time. It was strange. The earth, the cracks in the earth, and the countless roots underneath, floating as if levitating. It was like a spaceship that stopped flying. <Like the roof in Luna Papa> (Bakhtiar Kudoinazarov, 1999). <Luna Papa> is a movie that fights against convention. The village cannot accept Malaka, a pregnant girl, so they try to kick her out. The roof of her house turns into a spaceship. In a moment of crisis, it takes her aboard and travels far away. The image of <Time> was similar. It looked like a mother earth, wounded and cracked, but trying to embrace the gap. <Time> floats above the ground as if it has stopped flying, but it is not because it cannot fly. It waits for those who are left behind and come late.

Unlike the <Crack> series, <251_ellipsis> (2016) is a realistic story. It's something anyone could say. In this work, the artist uses unfinished words, superimposed letters, and written sentences to say things that don't make sense. If <Crack> showed a mother's embrace and the healing process of nature, <251_ellipsis> seems to be about the breakdown of communication. But it only seems that way visually. If there is a speaker in the work, I think the speaker of both works is the same person. <251_ellipsis> is a light sigh that a normal person would let out. Instead of getting angry, he stutters or doesn't speak at all. There are so many things they want to say, but they can't. Just as black becomes black when all three

165 / 166

primary colors of color (CMY) are mixed together, and white becomes white when all three primary colors of light (RGB) are mixed together, the silence that exists in <251_ellipsis> is the result of words covering words and white space covering white space. In the end, the speaker's speechlessness and stuttering become a new language, showing the tiredness of the earth mother's reality. But it's not all hopeless. The ellipsis is another way to fill in the gaps. Like the grass in the gap in "Crack", the artist tries to fill in the gaps in reality with grumbling, or neutralize them with silence. Either way, it's part of our daily lives.

In <251_ellipsis>, the speaker looks back at himself. How have I lived my life so far? Who am I now? The narrator has lost her voice in reality and conformed to the roles society demands of her, and she wonders if she is a tiger mouth. <In 251_ellipsis>, the woman who could not speak reveals the fate of women in Korean society through For the Elderly Woman in a Tiger's Mouth (2022) and Tiger's Mouth and the Mule's Foot (2023). Does this mean that the mother of the earth who appeared in Gap has disappeared, leaving only many women who carry the burden of our society's pre-modernity? No, it doesn't. The hogu in the work is not a passive hogu. Rather, she is an active woman, a woman who enjoys herself. She is even willing to leave if she chooses. She's just a person who chooses to be used where she is needed for a while. That's why I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I am a hogu. Maybe She is a god in human form.

Now, <Drifting Dreams> (2023) marks a new turning point. Mother Earth, who left <Crack> and named herself Hogu, succeeded in her transformation through <Drifting Dreams>. This is the same for the artist. The analog works he had been working on were inputted into a computer and transformed into 3D, leaving the offline world and going online, and using generative AI technology, he became <The 100-year-old woman who flew through the window> (2024). This 100-year-old woman was once the mother of the earth, a tutterer, and a hag. But she has evolved into all of those things. Just as Kusanagi, the protagonist of Ghost in the Shell (Mamoru Oshii, 1996), abandoned his android body and moved to the world of networks, Samantha,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r (Spike Jonze, 2014), moved from the human world to a new dimension. In this sense, the project <FOLLOW THE CRACK> (2025) is symbolic. The artist said that the name of the work was inspired by the phrase

FOLLOW THE CRACK YOUNGHEE LEE

"Follow the rabbit" from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Just as Alice followed the rabbit to a new world, I wonder where the artist will arrive after following the crack.

The first <Crack> I saw reminded me of a loving mother. The artist (or her work) must have accepted that fate. But gradually, it began to fragment. She stutters or stops speaking altogether. She calls herself an idiot and self-helps herself. This is what my mother looked like. This is the character that Korean society wanted in the 80s. But the artist didn't stay there. She evolved after the division. And now she pursues the crack she tried to fill. He explores the crack. Flying into the crack. This transformation was accompanied by the artist's newfound acceptance of video technology. The resulting video led him to the world of the multiverse, where instead of his mother, there was an "Old woman of about 100 years old who flew through the window". There, the artist becomes an old woman of about 100 years old and flies through the window and into the gap. The old woman in the online world is Kusanagi, who realizes the nature of the world. She is Samantha, who has crossed dimensions. <FOLLOW THE CRACK>(2025) is a door that opens a new world. I wonder what the world behind the door is like. That is why I am very curious about the artist's next work.

Appendix

부록

Photo

사진



The earth bearing se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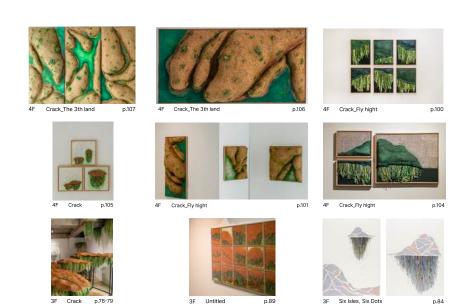


Video

영상



Installation 평면/입체 작품



Installation

평면/입체 작품

2F p.52-53

Follow the Crack p.46-47 2F p.120-121 4F p.124-125 4F

이영희

www.youngheelee.com

email Hi5younghee@gmail.com insta @youngheelee_crack phone +82_10_5338_9281



작가는 오랫동안 주변의 '틈(crack)'에 주목하며 역동적인 에너지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탐구해왔다. 사진, 3D VR painting, 영상, 오브제, 회화, 재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Total Installation으로 확장하고 있다.

학력

2017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박사

2000 세종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

198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미술교육학 수료

1984 덕성여자대학교 응용미술학 학사

1980 서울교육대학교

전시, 수상 및 선정

2025 FOCUS LONDON 아트페어 참가, 런던, 영국

CI contemporary istanbul 아트페어 참가, 이스탄블, 튀르키예

단넨베르크 시 초청 문화교류전, 단넨베르그, 독일

Photo Basel 아트페어 참가, 바젤, 스위스

태평양 예술가회 창립 30주년 기념전, 한벽원 미술관, 서울

<Follow the crack> 개인전, On_air 갤러리, 서울

<숯의 꽃> 미디어전(팀), 모든예술31x성남 선정, 성남문화재단, 성남

<새로운 만남> 초대전 아트스페이스 호서

2024 <바늘구멍을 통과한 빛들> 미디어아트전 선정(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광주문화재단

<이중눈동자/PuPulaDuPlex> XR 뉴미디어전(팀), 모든예술31x안양 선정, 오픈스쿨, 안양문화재단

<창문 너머 날아간 100세쯤 여자노인> 생성형AI 우수콘텐츠 선정, 성남문화재단

CV

- <4인 4색> 프로젝션매핑 우수콘텐츠 선정 (팀), 성남문화재단
-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_말의 세계>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콘텐츠랩, 한국콘텐츠진흥원
- <All together> 탄천현대작가회, 아리수 갤러리, 서울
- <마고 날다/ 비디오 설치>, PCC 전시, 경기도 콘텐츠미디어랩, 경기도콘텐츠진흥원
- <대한민국 국회초대전> 국회 갤러리
- 2023 <호구와 노루발> 예술지원선정(개인전),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문화재단, 서울
 - <물러선 대지 III> 대안공간 NAH, 설악국제아트페스티발, 'Recycle' 속초, 강원도
 - <물러선 대지 II> 대안공간 NAH, 설악산 현대미술프로젝트, 속초, 강원도
 - <물러선 대지 I> 대안공간 NAH, 설악산 현대미술프로젝트, 속초, 강원도
 - <날으는 꿈의 소행성> 외, VR painting 전(팀),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성남문화재단
 - < FLYHI MAGO > 외 NFT 영상 크리에이터 전(팀), 성남미디어갤러리, 성남문화재단
 - <사향 7색>전, 샘미술관, 서울
 - <라이프 로그 VR Paint>전, 성남문화재단 지원, 성남미디어센터 미디어갤러리, 성남
 - <한국미술협회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22 <호구에 든 여자노인을 위한> 프로젝트스페이스영등포, 서울
 - <Fly hight> 외 VR painting전(팀), 성남미디어갤러리, 성남문화재단
 - <한국미술협회전> 지상전
- 2021 <소소한 외출>, 마루아트센터, 서울
 - <한국미술협회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9 <틈: 날아오르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공생도시) 선정, 안양문화재단, 안양
- 2018 < Crack: The 3th land> 41갤러리, 서울
 - <제20회 단원미술제> 선정, 김홍도미술관, 안산문화재단, 안산
- 2017 < Crack : Fiv Hight> Instant roof, 서울
- 2016 <251_Ellipsis> 갤러리피치, 서울
- 2015 < Drawings > 샬레, 용인
- 2014 <393_Ellipsis> Instant roof, 서울
 - <마침내 말없음표> 김중업박물관, 안양연고작가 선정, 안양문화재단, 안양
- 2013 <틈:12> 사진출판기념, 갤러리 비원, 서울
 - <틈: 12> 사진전 및 출판기념회, 개인전, 어반소울, 서울
 - <무브> PHY 갤러리, 서울
- 2011/ 2005/ 2003 < Crack : Life > 개인전,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1 <New York Art Expo> 참가, 코스모스 갤러리, 뉴욕
 - <Kiaf> 참가. coex홀. 코스모스 갤러리. 서울
- 2011 <틈: 삶>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5 <톰: 삶>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4 <현대미술 11인전>, 예일화랑, 서울
- 2003 <톰: 삶>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4인전>, 갤러리 아지오, 양평, 경기도
 - <현대미술 11인의 시각과 전망전>, 예일화랑, 서울
 - <현대미술 11인전>, 예일화랑, 서울

- 2001 <20인의 섬유조형전>, 우덕갤러리, 서울
 - <서울섬유미술제>, 우덕갤러리, 서울
- 2000 <짚풀아트전>, 부천시민회관, 부천, 경기도
- 1998 <겨울대성리전>, 대성리, 경기도
 - <발굴: 섬>, 토탈미술관, 경기도 장흥 외
 - <Night and Day>, 죽산국제예술제 선정, 무대주변 설치, 경기도
- 1997 <톰>, 관훈갤러리, 개인전, 서울
 - <공간과공간 소통의 회복(IV)>, 4인전, 관훈갤러리, 서울
- 1996 <요르단 국왕초청 아라비아전>, Royal Cultural Center, Am man, Jordan
 - <서울섬유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한국조각의 비약전>, 코스모스갤러리, 서울
 - <문양의 탐색(3)>, 4인전, 관훈갤러리, 서울
 - <울란바토르전>, 울란바토르국립미술관, 몽골
- 1995 <톰>, 갤러리 터, 서울 등
 - <뉴질랜드의회의장초청 한국작가 초대전>, 오클랜드 컨벤션미술관, 뉴질랜드
 - <우즈베키스탄 독립 4주년 기념 타쉬겐트전>, 타쉬겐트 예술의 전당, 우즈베키스탄
 - <설악국제비엔날레>, 설악프라자패밀리타운 전시장, 속초
- 1994 <제4회 의식의 확산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갤러리 신미술 개관 초대전>, 갤러리 신미술, 서울
 - <중국 사천성장 한국작가초대전>, 사천성미술관, 중국
 - <제12회 신미술대전>, 디자인포장센터, 서울
 - <제3회 종이미술전>, 은상, 예술의 전당, 서울
 - <설악자연미술제>, 설악리조텔, 속초
 - <문양의 탐색>, 5인전, 운현궁 미술관, 서울
- 1993 <공간과 공간, 소통의 회복전>, 4인전, 소나무갤러리, 서울
 - <제3회 의식의 확산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신미술대전>, 디자인포장센터, 서울
 - <우즈벡공화국 독립 2주년 기념 한국작가초대전>, 타쉬겐트 국립예술의 전당
- 1992/ 1989/ 1987 <제3-5회 섬유조형의 장>, 토 아트스페이스, 시립미술관, 경인미술관, 서울

출피

- 2017 <251 Ellipsis> 127p (ISBN 979-11-87835-01-1)
- 2014 <393 Ellipsis> 88p (ISBN 978-89-966011-3-5)
- 2012 < E CRACK: 12> 178p (ISBN 978-89-966011-2-8)
- 2011 <Lee Younghee>, 마스터 카탈로그, 168p (ISBN 978996601111 03600)

작품 소장

여섯 개의 점 여섯 개의 섬, 110×147, 2014, 2점 김중업박물관, 안양문화재단

CV

Young-Hee Lee

www.youngheelee.com

email Hi5younghee@gmail.com insta @youngheelee_crack phone +82_10_5338_9281



The artist has long focused on the "cracks" in her surroundings, exploring ways to reconstruct them with dynamic energy.

She applies various media, such as photography, 3d Vr Painting, video, objects, painting, and sewing, and expand into total installations.

Education

2017	Ph.D. in Childhood Studies, Myongji Universit
2000	M.A. in Fine Arts, Sejong University
1988	B.A. Art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4	B.A., Deoksung Women's University
1980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xhibitions

2025	FOCUS LONDON Art Fair, London, United Kingdom CI contemporary istanbul Art Fair, Istanbul, Türkiye Dannenberg City Invitation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Dannenberg, Germany Photo Basel Art Fair, Basel, Switzerland Pacific Artists Association Exhibition, Hanbyeokwon Museum of Art, Seoul <charcoal flower="">, Media Exhibition(Team),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Seongnam</charcoal>
	<follow crack="" the="">, Solo exhibition, On_air gallery seoul, Korea</follow>
	<new encounters="">, Invitational Exhibition at Art Space Hoseo</new>
2024	< Light Through the Needlehole>(Team), Gwangju Media Art Platform, Gwangju Cultural Foundation
	<pupuladuplex> XR New Media Exhibition (Team), Open School, Anyang Cultural Foundation</pupuladuplex>

< A 100-year-old woman who flew out of window>, Selected as Al creators,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 Four People, Four Colors > Projection Mapping (Team),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the exist_the="" exists,="" not="" of="" that="" words="" world="">, Contents Lab,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the>
	< All together>, Tancheon Contemporary Artists Association, Arisu Gallery, Seoul
	<margot flies="" installation="" video="">, PCC Exhibition, Gyeonggi Contents Media Lab, Gyeonggi Contents Agency</margot>
	< National Assembly Invitational Exhibition>, Seocho Artists Association, National Assembly Gallery, Korea
2023	<hogu and="" deer's="" feet="" roe="">, Art Space Uisikju, Seoul, Korea</hogu>
	<the earth="" i-iii="" retreated="">, Alternative Space NAH, Seoraksan Contemporary Art Project, Sokcho, Korea</the>
2022	<for elderly="" hogu="" in="" the="" woman="">, Project Space Yeongdeungpo, Seoul, Korea</for>
	<fly hight=""> and VR Paint Exhibition (Team), Seongnam Media Gallery, Seongnam Cultural Foundation</fly>
	<korean art="" association="" exhibition="">, Exhibition</korean>
2021	<small outings="">, Maru Art Center, Seoul</small>
	<korean art="" association="" exhibition="">, Seoul Arts Center Hangaram Museum of Art, Seoul</korean>
2019	<crack: fly="" hight="">,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 Anyang Cultural Foundation, Korea</crack:>
2018	<crack: 3rd="" land="" the="">, 41 Gallery, Seoul, Korea</crack:>
	<the 20th="" art="" danwon="" festival="">, Kim Hongdo Museum of Art, Ansan Cultural Foundation</the>
2017	<crack: fiy="" hight="">, Instant roof, Seoul, Korea</crack:>
2016	<251_Ellipsis>, Gallery Pitch, Seoul, Korea
	<textile 13="" art:="" artists="" exhibition="">, Park Eulbok Embroidery Museum, Seoul</textile>
2015	<drawings>, Chalet, Yongin</drawings>
2014	<393_Ellipsis>, Instant roof, Seoul, Korea
	<final ellipsis=""> (selected as Line up Artists in Anyang), Kim Joongup Museum, Anyang Cultural Foundation</final>
2013	<crack: 12="">, Photo publication celebration, Gallery Biwon, Seoul</crack:>
	<move> PHY Gallery, Seoul</move>
2011/ 2	2005/ 2003 <crack: life=""> Solo Exhibition, Gana Art Space, Seoul, Korea</crack:>
2011	<crack: life="">, Gana Art Space, Seoul, Korea</crack:>
	Participated in <new art="" expo="" york="">, Cosmos Gallery, New York</new>
	Participated in <kiaf>, COEX Hall, Cosmos Gallery, Seoula</kiaf>
2005	<crack: life="">, Gana Art Space, Seoul, Korea</crack:>
2004	<11 Contemporary Artists Exhibition>, Yale Gallery, Seoul
2003	<crack: life="">, Gana Art Space, Seoul, Korea</crack:>
	<4 Artists Exhibition>, Gallery Azio, Yangpyeong, Gyeonggi Province
	<perspectives 11="" and="" artists="" contemporary="" exhibition="" of="" prospects="">, Yale Gallery, Seoul</perspectives>
	<11 Contemporary Artists Exhibition>, Yale Gallery, Seoul
2001	<20 Fiber Sculpture Exhibition>, Woodeok Gallery, Seoul
	<seoul art="" festival="" fiber="">, Woodeok Gallery, Seoul</seoul>
2000	<straw art="" exhibition=""> Rucheon Civic Center Rucheon, Gyeonggi Province</straw>

1998 < Excavation: Island>, Total Museum of Art, Jangheung, Gyeonggi-do, Korea

<Night and Day>, selected for Juksan International Art Festival, Gyeonggi-do, Korea

<Winter Daeseongrie>, Daeseongri, Gyeonggi Province

179 / 180

1997	<crack>, Kwanhoon Gallery, Solo Exhibition, Seoul</crack>
	<space (iv)="" and="" communication="" of="" restoration="" space:="">(4 artists), Kwanhoon Gallery, Seoul</space>
1996	<arabian at="" exhibition="" invitation="" jordan="" king="" of="" the="">, Royal Cultural Center, Amman, Jordan</arabian>
	<seoul art="" festival="" textile="">, Seoul Museum of Art, Seoul</seoul>
	<leap forward="" in="" korean="" sculpture="">, Cosmos Gallery, Seoul</leap>
	<exploration (3)="" of="" patterns="">, Group Exhibition of Four Artists, Gwanhoon Gallery, Seoul</exploration>
	<ulaanbaatar exhibition="">, Ulaanbaatar National Museum of Fine Arts, Mongolia</ulaanbaatar>
1995	<crack>, Gallery Tae, Seoul, etc</crack>
	<pre><excavation_crack>, Solo Exhibition, Gallery Tae, Seoul, etc</excavation_crack></pre>
	< New Zealand Parliament Speaker's Invitation Exhibition>, Auckland Convention Art Gallery, New Zealand
	< Tashkent Exhibition 4th Anniversary of Uzbekistan's Independence>, Tashkent Palace of Culture, Uzbekistan
	<seorak biennale="" international="">, Seorak Plaza Family Town Exhibition Hall, Sokcho, Gangwon Province</seorak>
1994	<the 4th="" consciousness="" diffusion="" exhibition="" of="">,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the>
	<gallery art="" exhibition="" invitational="" opening="" shin="">, Gallery Shin Art, Seoul</gallery>
	<sichuan artists="" china="" exhibition="" invitational="" korean="" of="" province,="">, Sichuan Provincial Art Museum, China</sichuan>
	<the 12th="" art="" exhibition="" grand="" shin="">, Design Packaging Center, Seoul</the>
	<the 3rd="" art="" exhibition="" paper="">, Silver Prize, Seoul Arts Center, Seoul</the>
	<seorak art="" festival="" nature="">, Seorak Resortel, Sokcho</seorak>
	<exploration of="" patterns="">, 5-Person Exhibition, Unhyeongung Art Museum, Seoul</exploration>
1993	<space and="" communication="" exhibition="" for="" of="" restoration="" space,="" the="">, Four Artists, Pine Tree Gallery, Seoul</space>
	<the 3rd="" consciousness="" diffusion="" exhibition="" of="" the="">,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the>
	<new art="" exhibition="" grand="">, Design Packaging Center, Seoul</new>
	<invitation 2nd="" anniversary="" exhibition,="" independence="" of="" the="" uzbekistan="">, Tashkent National Arts Center</invitation>

1992/1989/1987 < The 3rd-5th Textile Sculpture Exhibition>, Art Space, Seoul Museum of Art, Gyeongin Museum

Publications

2017	<251 Ellipsis> total 127p (ISBN 979-11-87835-01-1)
	88 pages total (ISBN 978-89-966011-3-5)
2012	<crack: 12=""> total 178p (ISBN 978-89-966011-2-8)</crack:>
2014	<393 Ellipsis> total 88p
2011	<lee younghee=""> Master Catalog, total 168p (ISBN 978996601111 03600)</lee>

Artwork Collection

Six dots Six islands, 110×147, 2014, 2 pieces Kim Joongup Museum, Anyang Cultural Center

FOLLOW THE CRACK — YOUNGHEE LEE

이영희 개인전

FOLLOW THE CRACK

- · 발행인: 이영희
- · 기획: 이영희
- · 주최: 이영희
- · 주관: ONAIR 갤러리
- · 글/칼럼: 이선영, 박소호, 오세섭
- · 사진: 백영철
- · 그래픽 디자인: 김윤하
- · 편집 디자인: 김윤하
- · 전시 기간: 2025년 5월 27일(화) 2025년 6월 8일(일)
- · 관람 시간: 12:00 18:00 (월요일 휴관)
- · 오프닝: 2025년 5월 30일(금) 17:00
- · 장소: ONAIR 갤러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62-57)

이 책에 수록된 텍스트와 이미지의 저작권은 저자와 작가에게 있으며, 발행권은 이영희에게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모든 권리는 보호됩니다.



Younghee Lee Solo Exhibition

FOLLOW THE CRACK

Publisher: Younghee Lee
Planning: Younghee Lee
Hosted: Younghee Lee
Organized: ONAIR Gallery

· Column/articles : Sunyoung Lee, Soho Park, Sesup Oh

Photographer : Youngchul Baek Grapic Design : Yoonha Kim Editorial Design : Yoonha Kim

· Date : 2025.05.27(Tue)-2025.06.08(Sun) · Time : 12:00-18:00(Closed on Monday)

· Invitation: 2025.05.30(Fri) 17:00

· Venue : ONAIR Gallery(62-57 Yeonhee-ro 14-gil, Seodaemun-gu, Seoul, Korea)

The copyright of the text and images in this book belongs to the author and the artist,
Publication rights are reserved by Young-hee Lee.
This is a work protected by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